<h1>나 혼자만 레벨업-8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i01761fb1b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7화</p>  
<p>신기한 현상이었다.</p>  
<p>저편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크고 가까워질수록 헌터들이 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갔다.</p>  
<p>"손 형..."</p>  
<p>"..."</p>  
<p>일대에 정적이 내려앉았다.</p>  
<p>쫑긋.</p>  
<p>진우의 귓바퀴가 움직였다.</p>  
<p>주변이 조용해진 틈을 이용해 진우는 들려오는 발소리로 놈들의 숫자를 가늠해 보았다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발달된 청각과 높은 감각 스탯 덕분에 발소리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.</p>  
<p>'48, 49, 50, 51.'</p>  
<p>전부 51개의 발소리.</p>  
<p>아까 전 하이오크 전사들이 내었던 발소리와 같았다.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'...'</p>  
<p>헌터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.</p>  
<p>그들 또한 기척을 통해 적들의 대략적인 규모를 눈치챈 것이다.</p>  
<p>방금 22마리의 하이오크 전사들을 상대로도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던 공격대다.</p>  
<p>그런데 이제는 51마리.</p>  
<p>두 배가 넘는 숫자.</p>  
<p>'...승산이 없어.'</p>  
<p>이들, 공격대에겐 말이다.</p>  
<p>문득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그림자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.</p>  
<p>우우우-</p>  
<p>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림자 병사들의 원성이 들려오는 듯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쿵, 쿵, 쿵.</p>  
<p>여태까지 잠잠하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.</p>  
<p>'기다려...'</p>  
<p>아직은 때가 아니다.</p>  
<p>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인 진우는 조용히 전방을 응시했다.</p>  
<p>마침내 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척.</p>  
<p>하이오크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헌터들 앞에 멈춰 섰다.</p>  
<p>"크르르르."</p>  
<p>"크륵."</p>  
<p>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리는 하이오크들.</p>  
<p>쉰이 넘는 하이오크 전사들의 위압감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싸우지 않아도 결과는 뻔했다.</p>  
<p>"미치겠네."</p>  
<p>"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..."</p>  
<p>"으..."</p>  
<p>헌터들은 탄식했다.</p>  
<p>위압감에 짓눌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지만, 안타깝게도 퇴로는 막혀있었다.</p>  
<p>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?</p>  
<p>다들 싸울 준비는 한참 전에 끝냈지만,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리더인 손기훈의 눈치만 살폈다.</p>  
<p>손기훈은 입을 일자로 꾹 다물었다.</p>  
<p>'젠장...'</p>  
<p>이럴 때 최종인 대표나 차해인 헌터, 둘 중 어느 한 사람만 있었어도...</p>  
<p>그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S급에겐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.</p>  
<p>그들만 있다면 이런 하이오크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텐데.</p>  
<p>'왜 하필 이럴 때에...'</p>  
<p>그 두사람이 없는 걸까?</p>  
<p>항상 그들과 함께 싸웠던 손기훈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.</p>  
<p>S급의 부재가 너무도 뼈아팠다.</p>  
<p>하지만 언제까지고 한탄만 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.</p>  
<p>'여기서 싸우는 건 개죽음이야.'</p>  
<p>하지만 뒤가 막혀 있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.</p>  
<p>헌터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, 던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, 그리고 중상을 입고 처음 의식을 잃었을 때.</p>  
<p>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막연히 짐작하고 있지 않았던가.</p>  
<p>'그래, 그랬었지.'</p>  
<p>죽음을 각오한 손기훈이 장검을 빼 들었다.</p>  
<p>스르릉.</p>  
<p>손기훈이 돌아보자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헌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손기훈의 고개가 다시 앞을 향했다.</p>  
<p>턱밑까지 방패를 치켜든 그는 아직까지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이오크들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.</p>  
<p>'드디어 결심이 섰나?'</p>  
<p>진우도 준비를 갖췄다.</p>  
<p>등 뒤로 감춘 오른손에 '바루카의 단도'가 스르르 나타났다.</p>  
<p>그리고 눈을 감았다.</p>  
<p>미칠 듯이 박동하던 심장이 전투를 앞두고서는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아갔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쓸데없는 힘을 빼고, 고르게 호흡을 한다.</p>  
<p>'...좋아.'</p>  
<p>다시 뜬 진우의 두 눈에서 예리한 안광이 번뜩였다.</p>  
<p>꼴깍.</p>  
<p>헌터들이 잘 넘어가지 않는 마른 침을 억지로 삼켰다. 그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갔다.</p>  
<p>반면 진우는 군침을 삼켰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'이놈들은 경험치를 얼마나 줄까?'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갔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.</p>  
<p>하이오크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앞서 있던 오크들을 거칠게 해치고서 걸어 나온 놈은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두 눈으로 헌터들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"그르르르..."</p>  
<p>다른 놈들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어금니가 긴 녀석.</p>  
<p>'저놈이 대장인가?'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지금 당장 저 녀석을 해치워 버리면 싸움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.</p>  
<p>어떡한다?</p>  
<p>진우가 '바루카의 단도'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사이, 하이오크의 입이 열렸다.</p>  
<p>"크레락 투 쉬나 위그두 아락나카."</p>  
<p>우렁찬 목소리.</p>  
<p>하이오크의 시선은 공격대의 선두 손기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.</p>  
<p>"크레락 투 쉬나 위그두 아락나카!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헌터들의 시선이 분주해졌다.</p>  
<p>"뭐지?"</p>  
<p>"지금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?"</p>  
<p>"뭐라고 하는 거야?"</p>  
<p>그 순간.</p>  
<p>하이오크의 안면 근육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리고 그 떨림이 멈췄을 때, 놈의 입에서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"인간들..."</p>  
<p>마치 놈의 입을 빌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.</p>  
<p>"인간들이여..."</p>  
<p>자세히 보니 멀쩡했던 놈의 눈도 죽은 지 오래된 생선처럼 흐릿하게 변해 있었다.</p>  
<p>헉!</p>  
<p>헌터들은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은 듯 경악했다.</p>  
<p>오크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다니!</p>  
<p>'어떻게 오크가 우리말을?'</p>  
<p>'마법? 마법인가?'</p>  
<p>예상치 못한 사태에 헌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.</p>  
<p>대장 하이오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.</p>  
<p>"나는... 카르갈간... 너희... 인간들을... 만나고... 싶다... 이... 녀석을... 따라와라."</p>  
<p>마수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?</p>  
<p>지금껏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유례없는 상황에 손기훈은 물론, 공격대 전원이 크게 혼란스러워했다.</p>  
<p>"기훈이 형. 설마 마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?"</p>  
<p>"무시하세요."</p>  
<p>"기훈아, 이건 함정이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여기서 끝장을 보자."</p>  
<p>"그래도 말이 통하는 오크라면 혹시..."</p>  
<p>"너 인마, 그렇게 던전을 들락날락해 놓고 아직도 마수들을 모르냐?"</p>  
<p>짧은 시간,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.</p>  
<p>이내 침묵을 지키던 손기훈이 목소리에 응답했다.</p>  
<p>"카르갈간, 동굴을 막은 것은 너인가?"</p>  
<p>"그렇다... 나는... 긍지... 높은... 오르크의... 대주술사... 내... 마법은... 너희... 인간의... 힘으로... 부술... 수... 없다."</p>  
<p>"이 동굴 안에 너보다 강한 존재가 있는가?"</p>  
<p>"누가... 감히... 이... 나에게... 대적한단... 말인가!"</p>  
<p>쩌렁쩌렁 목소리가 울리며 헌터들의 고막을 때렸다.</p>  
<p>많은 헌터들이 인상을 쓰거나 귀를 막았지만, 손기훈만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예상이 맞았다.</p>  
<p>지금 저 하이오크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존재는 이번 던전의 보스가 틀림없었다.</p>  
<p>던전 브레이크 전까지는 보스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, 헌터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는 거다.</p>  
<p>'이유는 모르겠지만...'</p>  
<p>손기훈의 대답이 늦어지자 대장 하이오크가 머리 위로 도끼를 치켜 들었다.</p>  
<p>"선택해라... 여기서... 내... 병사들에게... 죽던가... 아니면...내... 병사들을... 따라오던가."</p>  
<p>"가겠다."</p>  
<p>손기훈의 즉답에 헌터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훈이 형!"</p>  
<p>"기훈 씨!"</p>  
<p>만류하는 동료들을 저지한 손기훈이 하이오크의 반응을 지켜보았다.</p>  
<p>"따라와라... 인간."</p>  
<p>그 말을 끝으로 대장 하이오크의 탁한 눈이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.</p>  
<p>짐승같이 흉흉한 두 눈빛.</p>  
<p>놈이 말했다.</p>  
<p>"아쉬 투 레카."</p>  
<p>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적의를 불태우고 있던 하이오크 전사들이 거짓말처럼 철수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던 대장 하이오크가 손기훈에게 따라오라는 듯 손짓했다.</p>  
<p>"우리도 가죠."</p>  
<p>손기훈이 가장 먼저 발을 뗐고, 주저하던 헌터들도 이내 하나둘 손기훈의 뒤를 따랐다.</p>  
<p>'무슨 생각이지?'</p>  
<p>진우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보스방에는 보스를 비롯해 이것보다 더 많은 하이오크들이 있을 테고, 당연히 싸워 이길 확률은 더 낮아진다.</p>  
<p>그런데도 놈들을 따라가려는 손기훈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'보스와 협상이라도 해 보려는 걸까?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?'</p>  
<p>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만...</p>  
<p>아니.</p>  
<p>어쩌면 잘된 일 일지도 모른다.</p>  
<p>잡몹 몇 마리 잡는 데서 그칠 줄 알았던 이번 레이드에서 보스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.</p>  
<p>진우는 쥐고 있던 단검을 창고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그리고 천천히 일행을 따라갔다.</p>  
<p>얼마나 걸었을까?</p>  
<p>서서히 걸음을 늦춘 손기훈이 어느새 옆까지 와 있었다.</p>  
<p>그가 낮은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다.</p>  
<p>"헌터님."</p>  
<p>"예."</p>  
<p>진우는 앞을 보며 대답했다.</p>  
<p>손기훈 역시 전방에서 앞장서 걷는 하이오크들의 등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우리는... 보스와 만나게 되면 놈을 급습할 겁니다. 그러면 기습이 성공하든 못하든 놈은 길을 막고 있던 마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겠죠."</p>  
<p>가정은 그럴 듯했다.</p>  
<p>저주계열 마법이 아닌 이상, 마법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그쪽에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.</p>  
<p>특히 수준 높은 마법일수록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했다.</p>  
<p>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걸까?</p>  
<p>보스를 죽이는 데 성공하거나 보스의 마법을 막는다고 해도, 금방 하이오크 전사들에게 포위당해 보스방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텐데.</p>  
<p>공격대가 살아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였다.</p>  
<p>진우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는 듯, 손기훈은 비장한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.</p>  
<p>"놈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팔린 사이 헌터님은 보스방에서 달아나세요. 던전을 빠져나가 메인 공격대에 연락해 주십시오."</p>  
<p>S급 헌터가 포함된 공격대가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터.</p>  
<p>손기훈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.</p>  
<p>"보스를 잡고 당신들도 죽겠다는 겁니까?"</p>  
<p>진우가 슬쩍 손기훈의 안색을 살폈다.</p>  
<p>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.</p>  
<p>"우리 일은 던전에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게이트를 닫는 겁니다. 그걸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돈을 지불하고 있죠."</p>  
<p>손기훈은 힘주어 말했다.</p>  
<p>"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 일을 할 겁니다.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. 당신은 여기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. 부디 살아서 여길 나가세요."</p>  
<p>그의 목소리에서 강한 신념이 느껴졌다.</p>  
<p>필사의 각오가 담겨 있었다.</p>  
<p>여기선 어떤 말을 해도 손기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차해인이 현장에 도착했다.</p>  
<p>모자를 푹 눌러쓰고 와서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다.</p>  
<p>그녀는 채굴팀 헌터들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몇몇 헌터들이 그녀 옆을 지나치며 힐끔거렸지만 길드 관계자겠거니 하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.</p>  
<p>멀리 배 팀장이 보였다.</p>  
<p>그의 근처에 모여 있는 채굴팀 헌터들도.</p>  
<p>두근, 두근.</p>  
<p>심장이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채굴팀 헌터들의 면면을 훑어보았다.</p>  
<p>'그 사람은...?'</p>  
<p>진우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뭐라고 할까?</p>  
<p>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'채굴일은 그만둔 걸까?'</p>  
<p>1분만 더 기다려 보자.</p>  
<p>잠깐 자리를 비운 것일 수도 있으니까.</p>  
<p>3분만 더.</p>  
<p>아니, 5분만 더.</p>  
<p>그렇게 15분을 기다려 봤지만 끝내 진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후-"</p>  
<p>긴 한숨과 함께 차해인이 돌아섰다.</p>  
<p>그러나 이내 몇 발짝 떼지 못하고 다시 서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.</p>  
<p>모자를 벗고 심호흡하던 그녀가 배 팀장에게 걸어갔다.</p>  
<p>채굴팀 헌터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.</p>  
<p>다행히 채굴팀 모두 낮은 랭크의 헌터들이라 그런지 냄새는 심하지 않았다.</p>  
<p>"어어?"</p>  
<p>차해인을 알아본 배 팀장이 냉큼 달려왔다.</p>  
<p>"차 헌터님, 오늘은 쉬시는 날 아니셨습니까?"</p>  
<p>"안녕하세요."</p>  
<p>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차해인은 누구 듣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"혹시 여기... 성진우 헌터라고 있나요?"</p>  
<p>"성 씨요?"</p>  
<p>뜻밖의 이름에 배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성 씨라면 아까 짐꾼 대타로 들어갔는데..."</p>  
<p>"짐꾼요?"</p>  
<p>차해인은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게이트로 들어갔단 말씀이신가요?"</p>  
<p>배 팀장은 사실은 자신도 어이가 없다는 듯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그렇다니까요."</p>  
<p>E급 헌터가 A급 던전에 자원해서 짐꾼으로 들어갔다고?</p>  
<p>목숨이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닌데.</p>  
<p>'무슨 생각인 걸까?'</p>  
<p>그러고 보니 그 사람 어제도 보스방에서 무기를 들고 서 있었지.</p>  
<p>역시 잘못 본 게 아니었다.</p>  
<p>수상한 건 또 있었다.</p>  
<p>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, 곰곰이 생각해보니 헌터 경력 4년 차가 던전에서 길을 잃은 것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다.</p>  
<p>'알아봐야겠어.'</p>  
<p>대체 성진우란 사람이 헌터스 길드에서 뭘 하려는 건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그걸 알려면 던전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밖에.</p>  
<p>자신은 헌터스의 부사장이자, 현직 S급 헌터였다.</p>  
<p>헌터스의 레이드가 한참인 던전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말릴 사람은 없을 터.</p>  
<p>엄지손톱 끝을 깨물며 고민을 거듭하던 차해인이 결정을 내렸다.</p>  
<p>"저, 게이트에 들어가 봐야겠어요.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